



'마린보이' 박태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워리엄 올렛 주니어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팬퍼시픽 수영선수권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1위를 확정지은 후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아시안게임 금 예약

팬퍼시픽 수영 400m 올 세계 기록 우승

라이벌 중국 장린 압도적으로 따돌려

박태환(21·단국대)이 2010 팬퍼시픽 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올해 세계 기록이자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개인 최고 기록으로 대회 2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

박태환은 2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워리엄 올렛 주니어 어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4초73에 레이스를 마쳐 1위를 차지했다.

비록 베이징올림픽 때 세운 개인 최고 기록 3분41초86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림픽 이후 가장 빠른 기록으로 물살을 가르며 오는 11월 광저우에서 열릴 아시안 게임 전망을 밝혔다.

특히 박태환의 이날 기록은 첨단 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올해 들어 세계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박태환의 맞수인 장린(중국)이 4월24일 자국 선수권 대회에서 기록한 3분44초91이 올해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300m부터 폭발적인 스퍼트로 승부수를 던진 박태환은 29위 라이언 코크레이인(캐나다·3분46초78)과 2초 차가량 앞선 채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박태환과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다툴 장린은 박태환보다 2.18초 뒤진 3분46초91로 둘째에 그쳤다.

박태환은 이날 우승으로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2006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자유형 400m 금메달을 가져갔다. 자유형 400m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와 베이징올림픽까지 잇달아 금메달을 목에 건 종목이다.

박태환은 대회 첫날 자유형 200m에서 1분46초2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땄다.

한편, 정다래(전남수영연맹)는 여자 평영 50m 순위결정전에서 32초40으로 1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임치빈, 국제킥복싱 대회서 TKO승

국내 격투기의 간판스타 임치빈(31)이 '2010 세계킥복싱연맹-프로(WAKO PRO) 세계 캔디지' 대회에서 난적 발데트 가수(독일)를 TKO승으로 제압했다.

임치빈은 21일 서울 강동구체육관에서 대회 메인이벤트로 마련된 '아시아 대륙 VS 유럽 대륙 WAKO 세계 대항전'(67kg급)에서 가수를 1라운드 12초만에 TKO승으로 기록해

이겼다. 임치빈은 경기 시작과 함께 스트레이트 펀치를 상대 얼굴에 제대로 끊어 손쉽게 승리를 낚았다.

이로써 임치빈은 통산 전적 60승(37KO 16P) 고지에 오르면서 국내 격투기 경향급 최강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합뉴스

임치빈은 21일 서울 강동구체육관에서 대회 메인이벤트로 마련된 '아시아 대륙 VS 유럽 대륙 WAKO 세계 대항전'(67kg급)에서 가수를 1라운드 12초만에 TKO승으로 기록해

이겼다. 임치빈은 경기 시작과 함께 스트레이트 펀치를 상대 얼굴에 제대로 끊어 손쉽게 승리를 낚았다.

이로써 임치빈은 통산 전적 60승(37KO 16P) 고지에 오르면서 국내 격투기 경향급 최강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합뉴스

임치빈은 21일 서울 강동구체육관에서 대회 메인이벤트로 마련된 '아시아 대륙 VS 유럽 대륙 WAKO 세계 대항전'(67kg급)에서 가수를 1라운드 12초만에 TKO승으로 기록해

이겼다. 임치빈은 경기 시작과 함께 스트레이트 펀치를 상대 얼굴에 제대로 끊어 손쉽게 승리를 낚았다.

이로써 임치빈은 통산 전적 60승(37KO 16P) 고지에 오르면서 국내 격투기 경향급 최강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연합뉴스

한국남자들 이번에도 일낼까

최나연·김송희 공동 2위…선두 미야자토 맹추격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2R, 신지애 공동 4위

최나연(23·SK텔레콤)과 김송희(22·하이트)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이프웨이 클래식(총상금 150만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2위에 올라 11언더파 133타인 단독 선두 미야자토 애이(일본) 추격에 나섰다.

1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단독 1위에 오른 미야자토는 이날도 버디 7개에 보기 2개로 막아 2위와 격차를 3타로 벌리며 시즌 5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올해의 선수 부문과 세계 랭킹에서 모두 2위인 미야자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5언더파 67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8언더파 136타의 성적을 낸 최나연은 김송희와 함

께 공동 2위에 올라 11언더파 133타인 단독 선두 미야자토 애이(일본) 추격에 나섰다.

1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단독 1위에 오른 미야자토는 이날도 버디 7개에 보기 2개로 막아 2위와 격차를 3타로 벌리며 시즌 5승 가능성을 부풀렸다.

올해의 선수 부문과 세계 랭킹에서 모두 2위인 미야자토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5언더파 67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8언더파 136타의 성적을 낸 최나연은 김송희와 함께 공동 2위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

이 크다. 아직 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지만 해평균 타수 69.98타로 1위를 달리는 '실력파' 김송희도 버디 6개와 이글 1개로 무려 8언더파를 치며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최나연과 김송희가 미야자토를 추격하는 가운데 신지애(22·미래에셋)는 버디 6개와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중간 합계 7언더파 137타를 기록, 세계 랭킹 1위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공동 4위에 자리했다.

마지막 18번홀에서 보기가 나오는 바람에 공동 2위에서 한 계단 내려선 신지애는 올해 에비앙 마스터스에 이어 시즌 2승째를 노린다.

/연합뉴스



최나연



김송희



신지애

나상욱 61타 코스레코드 타이

PGA 원던 챔피언십 11위 도약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던 챔피언십(총상금 510만달러) 3라운드에서 9언더파 61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나상욱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시지필드 골프장(파72·7130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이글 1개를 묶어 9언더파 61타를 기록한 나상욱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12m 거리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며 코스 레코드 타이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까지 1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나상욱은 17언더파 193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아준 아트윌(인도)에 5타 뒤진 공동 11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공동 69위로 가까스로

컷을 통과했던 나상욱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12m 거리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며 코스 레코드 타이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9언더파 207타로 공동 3위를 기록한 나상욱에는 마지막 날 흰인원과 버디 3개, 보기 1개를 뽑아 내며 4타를 줄였다.

나상욱은 135야드짜리 5번홀(파3)에서 티샷이 흙집으로 빨려 들어가 흰인원의 기쁨을 맛보며 승리의 기운을 잡기 시작했다.

이후 착실하게 파 세이브를 한 나상욱은 18번홀에서도 파를 적어 내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함영애, 생애 첫 우승

KLPGA 넥스 마스터피스

함영애(23·세계투어)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스 마스터피스 2010(총상금 6억원)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함영애는 22일 제주 서귀포 더 클래식 골프장(파72·640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이글 1개를 묶어 9언더파 61타를 기록한 나상욱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12m 거리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며 코스 레코드 타이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9언더파 207타로 공동 3위를 기록한 함영애에는 마지막 날 흰인원과 버디 3개, 보기 1개를 뽑아 내며 4타를 줄였다.

함영애는 135야드짜리 5번홀(파3)에서 티샷이 흙집으로 빨려 들어가 흰인원의 기쁨을 맛보며 승리의 기운을 잡기 시작했다.

이후 착실하게 파 세이브를 한 함영애는 18번홀에서도 파를 적어 내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나상욱, KLPGA 넥스 마스터피스 우승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 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기획 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양시사 및 장소

• 2010.09.02(목) ~ 2010.09.07(화) / (총50시간 강의)

교양대학

• 2010.09.07(화) ~ 2010.09.08(수) / (총20시간 강의)

• 2010.09.09(목) ~ 2010.09.10(금) / (총20시간 강의)

• 2010.09.11(토) ~ 2010.09.12(일) / (총20시간 강의)

• 2010.09.13(월) ~ 2010.09.14(화) / (총20시간 강의)

• 2010.09.15(수) ~ 2010.09.16(목) / (총20시간 강의)

• 2010.09.17(금) ~ 2010.09.18(토) / (총20시간 강의)

• 2010.09.19(일) ~ 2010.09.20(월) / (총20시간 강의)

• 2010.09.21(화) ~ 2010.09.22(수) / (총20시간 강의)

• 2010.09.23(목) ~ 2010.09.24(금) / (총20시간 강의)

• 2010.09.25(토) ~ 2010.09.26(일) / (총20시간 강의)

• 2010.09.27(월) ~ 2010.09.28(화) / (총20시간 강의)

• 2010.09.29(수) ~ 2010.09.30(목) / (총20시간 강의)

• 2010.09.30(금) ~ 2010.10.01(토) / (총20시간 강의)

• 2010.10.01(일) ~ 2010.10.02(월) / (총20시간 강의)

• 2010.10.02(화) ~ 2010.10.03(수) / (총20시간 강의)

• 2010.10.03(목) ~ 2010.10.04(금) / (총20시간 강의)

• 2010.10.04(토) ~ 2010.10.05(일) / (총20시간 강의)

• 2010.10.05(월) ~ 2010.10.06(화) / (총20시간 강의)

• 2010.10.06(수) ~ 2010.10.07(목) / (총20시간 강의)

• 2010.10.07(금) ~ 2010.10.08(토) / (총20시간 강의)

• 2010.10.0